

지급결제 분야 해외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 상 욱

1. 국내외 Open Banking 정책 현황
2. 해외 금융회사의 Open Banking 도입 사례
3. 시사점

국내 금융결제시스템 현황

- ◆ 현재 국내에서 핀테크기업이 송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 펌뱅킹(Firm Banking)방식을 이용하거나 (2)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등을 통해 금융결제망 접속 필요

펌뱅킹과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비교

구분	설명	사례	한계점
펌뱅킹	핀테크기업이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는 은행과 제휴를 맺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페이(간편송금, 결제) • 네이버페이(간편송금, 결제) • 토스(간편송금) •페이코(간편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건당 300~500원) 부담 • 기술요건이 상이한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함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핀테크기업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에 가입하여 1개 은행과 대표 제휴를 체결하고 API를 활용하여 모든 은행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핀(모임의 회비관리서비스) • 재무디자인(자산관리플랫폼) • 코인샷(해외송금서비스) • 모아(클라우드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대상이 중소 핀테크기업으로 한정 (연매출 1,500억원 이하) • 이용수수료도 펌뱅킹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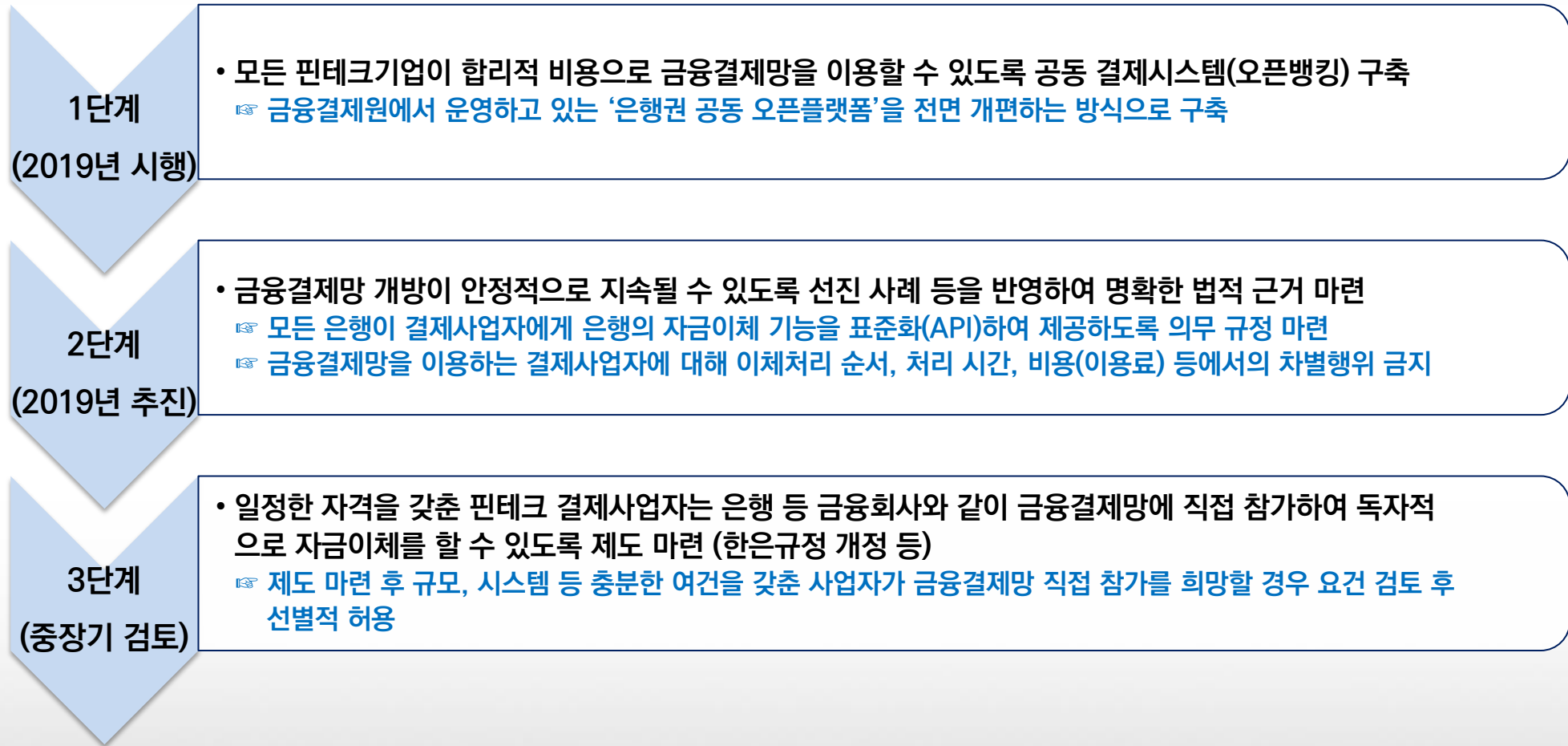


국내 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이체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혁신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금융위원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기업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고객 지향적 결제서비스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


금융결제망 개방 로드맵



해외의 Open Banking 정책 동향

- ◆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결제망 및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

해외 주요국의 Open Banking 정책




EU

- ‘개정 지급결제산업지침(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을 시행하여 고객동의 하에 지급지시전달업자(PISP*) 및 계좌정보관리업자(AISP*) 등의 핀테크기업에게 Open API를 통한 금융회사 계좌접근 및 결제망 개방을 의무화(2018.01)



영국

- ‘지급결제업무규칙(The Payment Services Regulations)’을 토대로 영국 CMA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가 은행 API를 핀테크기업에 개방하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의 Open Banking 정책 실시(20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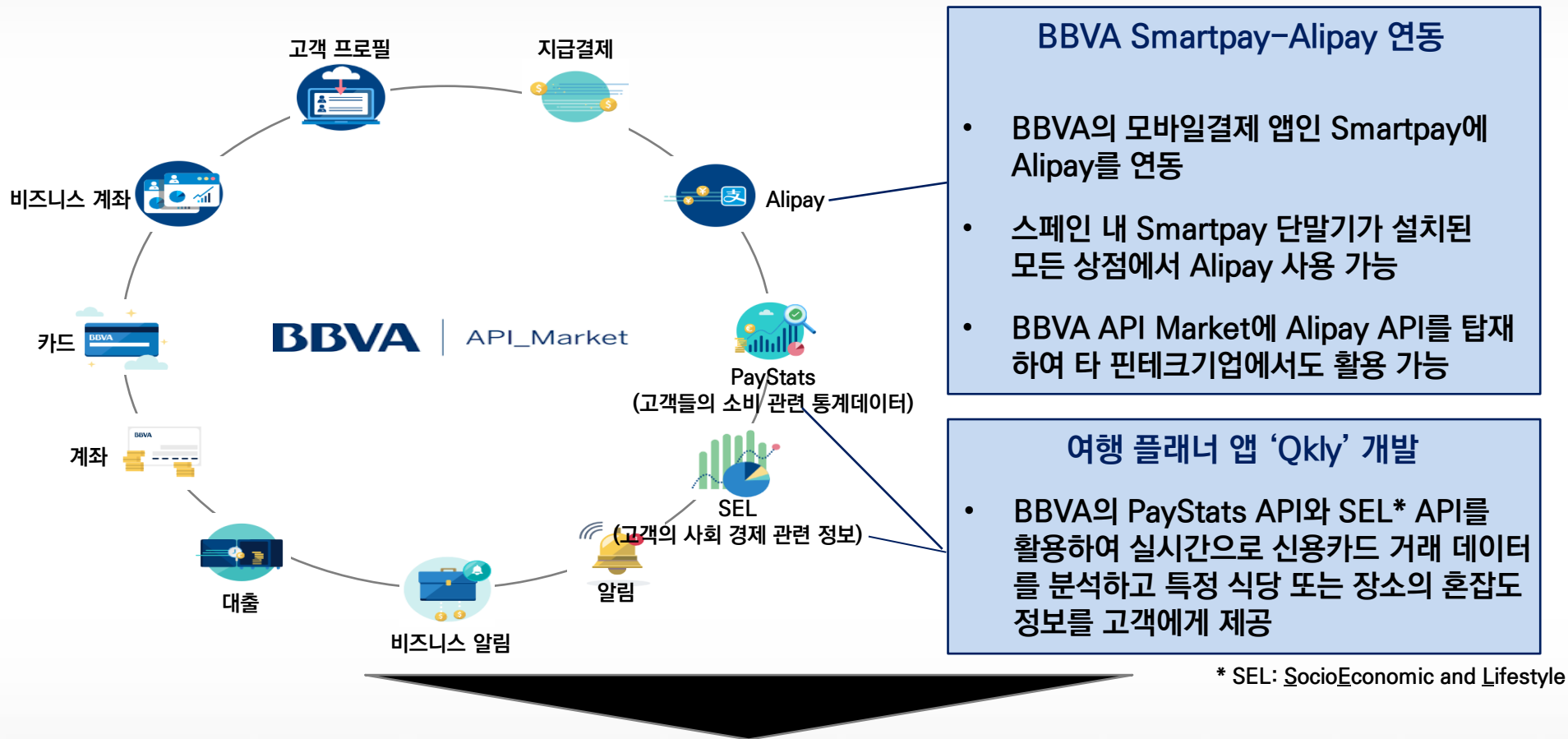
일본

- ‘은행법’ 개정을 통해 시중 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및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Open API 구축 의무를 부과(2017.05)

* 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s Provider
 * 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s Provider

① 스페인 BBVA의 'BBVA API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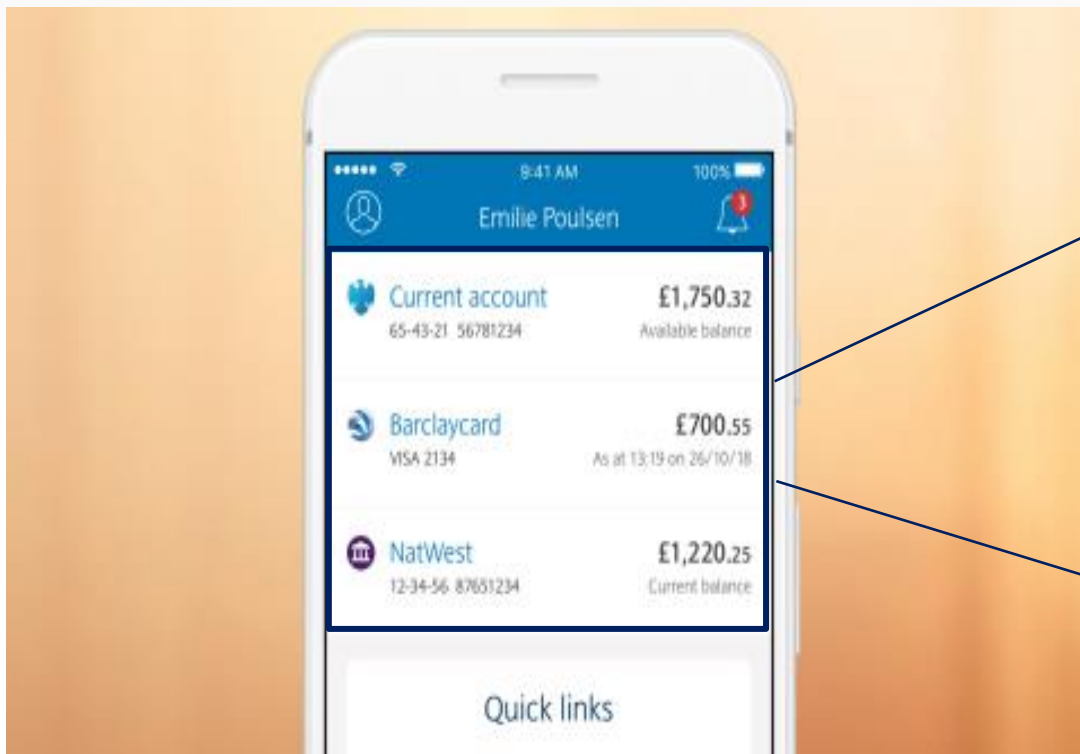
◆ 스페인 BBVA는 'BBVA API Market'을 운영하여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



BBVA API Market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API를 제공함으로써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금융플랫폼으로 진화 모색

② 영국 Barclays의 계좌 종합정보 플랫폼

- ◆ 영국 Barclays 은행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모바일뱅킹 앱으로 타사 계좌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Open Banking 서비스를 도입



특징

- 여러 은행의 계좌현황을 하나의 앱으로 조회 가능
- HSBC, ING 등의 경쟁은행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
- 아직까지 타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는 불가
하나 개인 자산 관리에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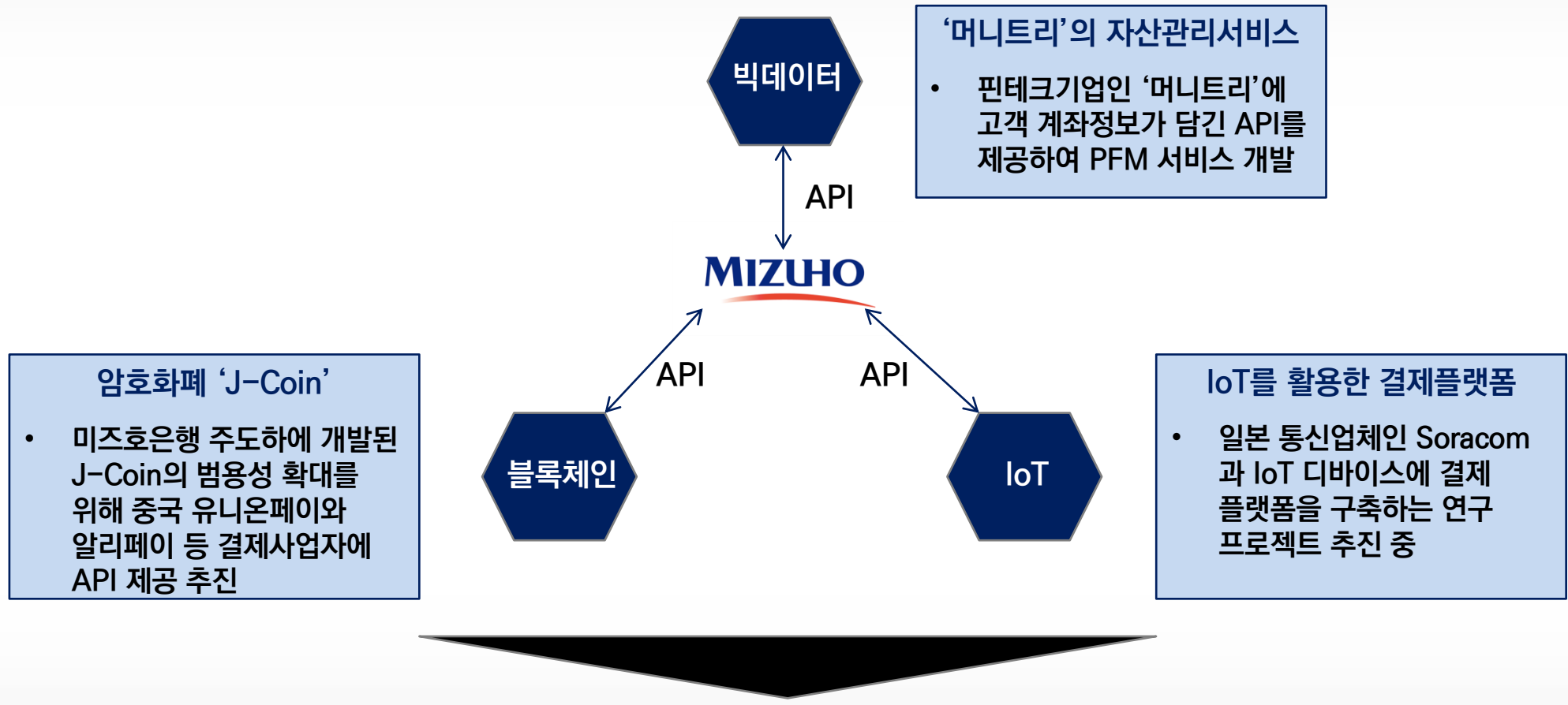
제휴 은행

- Lloyds, Halifax, Bank of Scotland, Nationwide, NatWest, RBS, Santander(7곳)
- First Direct, HSBC도 곧 추가될 예정

Open Banking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대형은행도 ‘계좌정보관리업자(AISP)’ 또는 ‘지급지시전달업자(PISP)’ 역할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 간 경계가 소멸될 가능성

③ 일본 미즈호은행의 Open Innovation

◆ 일본 미즈호은행은 로보틱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은행 내 고객 정보를 API로 결합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Open Innovation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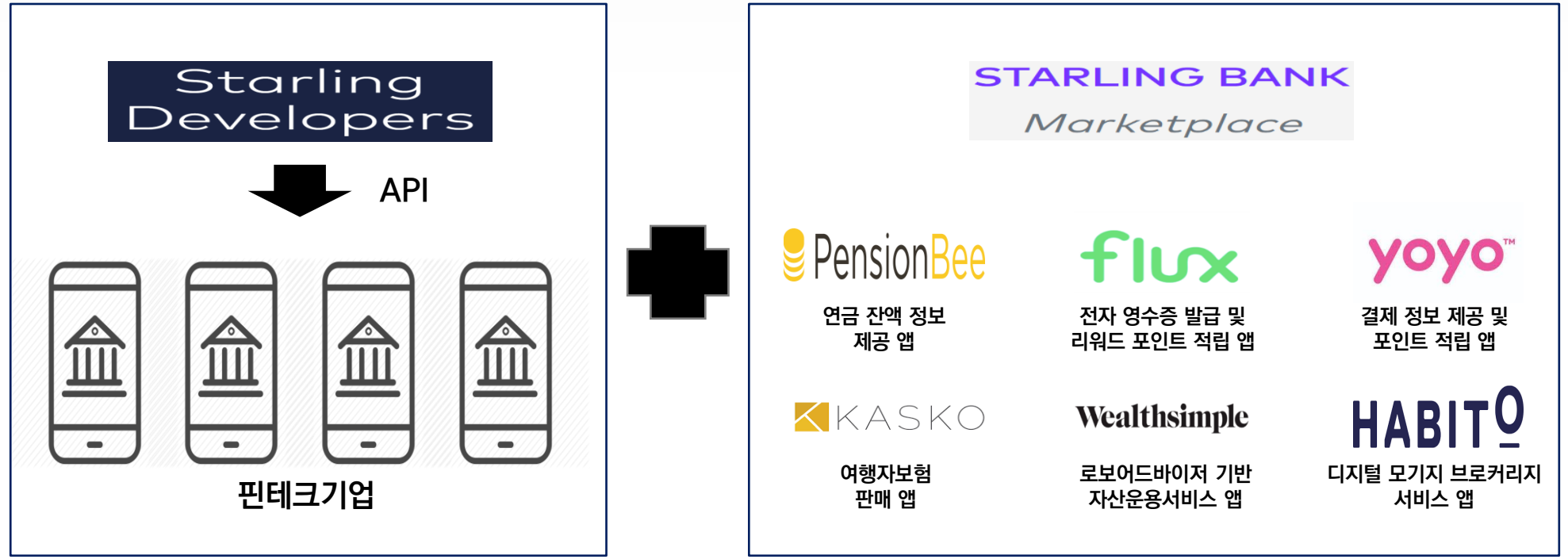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내부 기술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

④ 영국 Starling Bank의 'Marketplace'

◆ 영국의 Challenger Bank*인 Starling Bank는 'Starling Developers' 사이트를 통해 핀테크기업에 API를 제공하고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Marketplace'를 운영

* Challenger Bank: 영국 정부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내준 디지털 기반의 소매금융 전문은행 (ex. Atom Bank, Monzo, Starling Bank 등)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에 API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생태계 구축의 주도적 역할 수행 가능

Open Banking의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 ◆ Open Banking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업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나 대응 여부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전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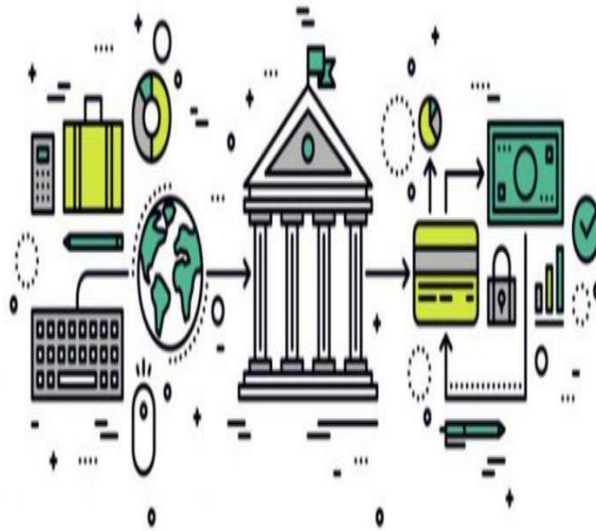
위협요인

고객 접점 상실

- Open Banking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기업에 의해 고객 접점을 상실할 가능성 증대

수익감소 및 데이터 유출 위험

- 핀테크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금융회사 수익의 일부가 잠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Open API 활용 과정에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발생 가능



OPEN BANKING?

기회요인

고객 확대

- 금융회사가 Open Banking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 할 수 있는 기회 증대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용이

- 은행의 방대한 데이터와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고객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용이

Open Banking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전략

- ◆ Open Banking 확산으로 금융회사 간 물리적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융회사들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과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적극적 대응전략을 통해 금융생태계 혁신을 주도해 나갈 필요

Open Banking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전략 방향

전략 방향 1 -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

- API를 활용하여 개발 가능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기획 역량 강화
- 커뮤니티를 통해 금융서비스 개발자 및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금융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전략 방향 2 -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 구축

- Open Banking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육성
- 기술력 있는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제휴하는 방안 검토

Open Banking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